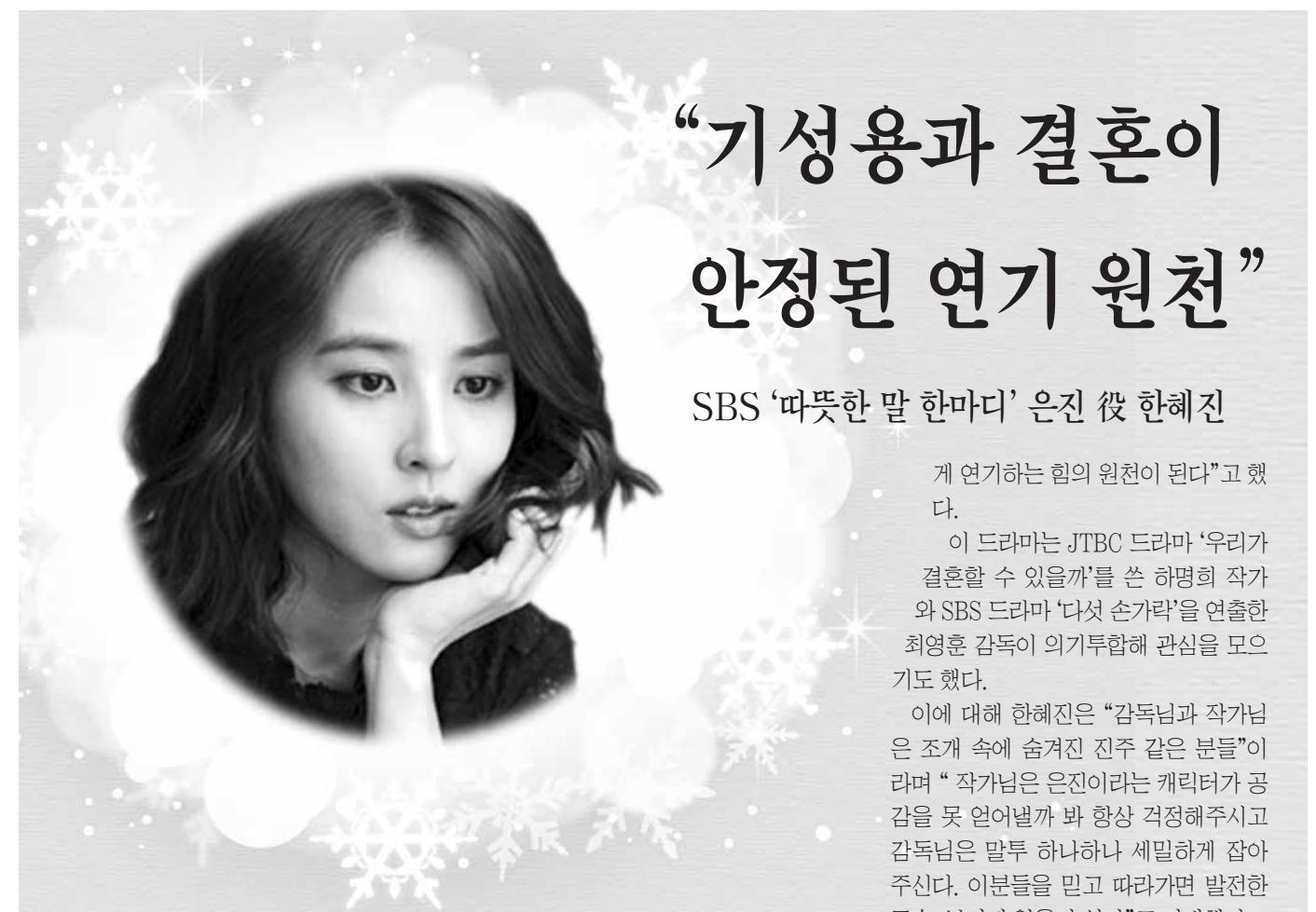


TV 10일

	채널A	KBS1	KBS2	MBC	KBS/SBS
⑥	⑤:50 관찰카메라 24시간(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00 웰컴 투 시월드(재)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이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5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이침
⑧	00 채널 A 아침뉴스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이침 연속극 <두 여자의 방>
⑨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은희>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⑩	00 뉴스 10 50 정치 이야기 是是非非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문화 활간자전거 55 트른 생활체조	50 지구촌 뉴스		25 SBS 뉴스 40 일일드라마 <질 키운 딸 하나>(재)
⑪	50 모드드라마 <싸인>(재)		00 대한민국 행복발전소(재) 55 비른 말 고운말	10 KBS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2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⑫			00 KBS 뉴스12	50 인간극장 스페셜(재)	00 MBC 정오 뉴스 20 우리기획 우리문화
⑬	00 뉴스 특보	00 2013 삼성화재배 월드비동 미스터스 결승 1국	35 힐링투어 아생의 발견(재)	25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30 특집 법륜사님 토크 콘서트 光州, 즉문즉설(재)
⑭	00 직언직설		00 KBS 뉴스스타임 10 세계는 지금(재)	05 키즈 사이언스 베스트	00 SBS 뉴스 10 네트워크 협장 고향이 보인다
⑮	00 웰컴 투 돈월드 초특급 정보 스페셜(재)	00 뉴스 토크	00 후토스 잊어버린 숲(재) 25 꼬마신선 터오(재) 55 TV 유치원	00 MBC 경제 뉴스 10 도비도비 40 꿈꾸기 쇠사교설 베스트	1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⑯	10 박종진의 뉴스 쇼 쾌도난간 1~2부	00 네트워크 특선 다큐멘터리 <숫자로 읽는 부산 넘버소> 55 트른 생활체조	25 애니월드 55 뮤마이아	30 똑? 똑! 키즈스쿨	00 꿈의 보석 프리즘스톤 30 내다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⑰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MBC 뉴스 10 2013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시상식
⑱	10 채널 A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시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20 브라보 멋진 인생	05 토크 콘서트 회화(談)
⑲	20 개국 2주년 특집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재)	00 KBS 뉴스 7 30 러브 인 아시아	50 일일 드라마 <루비반지>	15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시티 따따부파 20 일일드라마 <질 키운 딸 하나>
⑳	30 갈데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시령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대100	55 MBC 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	00 SBS 뉴스 35 KBC 8 뉴스 55 KBC 특집다큐 <화폭에 담은 남도>
㉑	40 채널 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컬투의 배란다쇼	
㉒		00 시사기획 창 50 콘서트 밀	00 월화드라마 <충리와 나>	00 월화드라마 <기황후>	00 월화드라마 <띠듯한 말 한마디>
㉓	00 모드드라마 <싸인>	30 KBS 뉴스 라인	15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15 심장이 된다
㉔	10 웰컴 투 시월드(재) ①:20 행복한 교육도시	30 국악의 향기 ①:10 생활의 발견(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해외 특별기획 드라마 <닥터 후>	10 MBC 뉴스 24 25 MBC 100분 토론 ①:50 MBC 플러스 특선 <무한걸스>	35 나이트리인 ①:05 특집다큐 만사형통 <발효콩의 비밀>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기성용과 결혼이 안정된 연기 원천”

SBS ‘따뜻한 말 한마디’ 은진役 한혜진

게 연기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고 했다.
이 드라마는 JTBC 드라마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를 쓴 하명희 작가와 SBS 드라마 ‘다섯 손가락’을 연출한 최영훈 감독이 의기투합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혜진은 “감독님과 작가님은 조개 속에 숨겨진 진주 같은 분들”이라며 “작가님은 은진이라는 캐릭터가 공감을 못 얻어낼까봐 항상 걱정해주시고 감독님은 말투 하나하나 세밀하게 잡아주신다. 이분들을 믿고 따라가면 발전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은진이 바람을 피운 재학의 아래 ‘미경’ 역을 맡아 은진과 대립각을 세우는 김지수도 이날 기자간담회에 함께 했다.

그는 “불륜드라마라고 생각하고 방송을 보신 분들이 생각했던 것만 이상하지 않고 재밌다고 하시더라”며 “우리가 자주 쓰고 생각하는 말들을 그대로 대본에 옮겨놓으니 시청자들이 공감하기가 쉬웠던 거 같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남자들이 철도 없고 단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드라마 대본을 보면서 남자들이 겁이 많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드라마를 통해 남자들의 모습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첫 방송으로 시청률 6.8%(닐슨코리아 기준)를 기록한 뒤 2회 때 8.4%로 시청률이 뛰어올랐다.

/연합뉴스

“나은진은 가족도 모르는 비밀에 기반해 다채로운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한 장면 한 장면이 전쟁과 같아요. 저 자신과 싸워가며 연기자로서 발전하고 성숙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SBS 월화드라마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주인공 ‘은진’을 맡은 한혜진은 9일 SBS 일간제작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현재 2회까지 방송된 가운데, 은진은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한 남편 성수(이상우 분)가 외도를 저지르자 상처를 받고 중소기업 대표 재학(지진희 분)과 불륜을 저지른다. 은진은 죄책감에 재학과의 관계를 곧 정리하지만 알리지 않은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게 된다.

2005년 MBC 드라마 ‘군세어라 금순아’로 스타 반열에 오른 한혜진은 ‘주몽’

‘제중원’ ‘가시나무새’ 등의 드라마를 거쳤다. SBS 토크쇼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의 MC를 맡아 재치있는 입담을 뽐냈던 그는 지난 7월 1일 8살 연하 축구 선수 기성용과 결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띠듯한 말 한마디’는 한혜진의 결혼 후 첫 북극작이다.

드라마가 불륜을 소재로 하는데도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는 말에 한혜진은 “작품 활동하면서 이렇게 뜻겁게 반응해주셨던 적이 ‘주몽’ 이후로 거의 없었다”며 “많은 분이 다음 회를 궁금해하고 내용을 물어보실 때 인기를 실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 중 남편과 싸우는 것처럼 기성용씨와 싸우는 게 아니라”는 질문에는 “친한 지인들까지 궁금해하는데 (기성용과) 싸운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기성이 안정되고 평안히 현장에서 자유롭

5·18 평화 ‘일베 현상’ 집중조명

KBS 광주 보도특집 ‘얼굴 없는 폭력’ 11일 밤 10시 방영

5·18 민주화운동과 전라도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냈던 ‘일베 현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된다.

KBS 광주방송총국은 11일 밤 10시 KBS1 TV를 통해 보도특집 ‘얼굴 없는 폭력’(연출 김기중·지종의, 촬영 이승준)을 방송한다.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을 맞아 기획한 이 프로그램에는 우리 사회에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혐오 발언의 현실과 피해자들의 사연을 담았다.

올해 인터넷 혐오 발언의 진원지로 떠오른 ‘일간베스트저작소(이하 일베)’가 어떻게 생겨나 극우화되어가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 일베 이용자들을 만나 이들이 누구이며, 어

떤 이유로 이 같은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지 이유를 들어본다.

5·18과 전라도, 여성,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폭력에 가까운 혐오가 왜 인터넷에 넘쳐나는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듣고,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기 시작한 혐오 발언의 사회적 위험을 경고한다.

일본과 독일의 극우 세력과 다른 듯 닮아 있는 일베 현상을 분석한 취재팀은 일본과 독일 현지에서 극우주의자들을 만나고, 이들로부터 대안을 찾는다.

인터넷 혐오 발언의 진원지로 떠오른 ‘일간베스트저작소(이하 일베)’가 어떻게 생겨나 극우화되어가고 있는지 살펴본다. 인터넷 기반의 우익 세력이 등장한 일본은 중학생이 공공장소에서 재일한국인에 대한 학살 발언을 하는 등, 오프라인 확장 뒤

사회 문제로 비화됐다.

독일은 신나치주의자들의 외국인 폭행과 살해가 계속되고 있어 정부와 민간 기구가 나서 대응하고 있다. 극우파의 좋은 무기가 돼 버린 웹사이트는 정부가 폐쇄했지만 다른 소셜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다.

일베는 최근에도 끊임없이 막발과 비하발언을 쏟아내며 사회적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버린 이들의 혐오와 증오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의명성을 방배 삼아 얼굴 없는 폭력을 자행하는 사람들 또한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것이 제작진의 결론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ju.co.kr

TV 하이라이트

외연도 해녀들의 숨가쁜 삶



한국기행(EBS·밤 9시30분)=시집와서 45년, 땅 위의 삶보다 물속 삶이 더 길었다. 외연도 해녀들의 인생이 그렇다. 둥이 트면 태왁과 잠수복, 수경을 챙겨서 바다로 가는 어머니들. 가쁜 숨소리를 숨비소리로 오늘도 바다 위에奔지고, 이후고 해삼, 전복, 소라가 올라온다. 그런 고난한 어머니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있다. 해막, 해파 이란 동네서 한참 떨어진 외딴곳에 있는 움막을 말한다. 그냥 움막이 아니다. 이처럼 평생 부족한 땅을 일구 먹거리를 생산해야 했으며, 바다 밑에 들어가 전복, 소라, 해삼을 건져 옮겨야 했음에도 해막처럼 섬 속의 또 다른 섬에 갈릴 수밖에 없었던 섬 어머니들의 삶. 2편에서는 그런 어머니들의 가슴 속 이야기를 한 편, 두 편 꺼내 바다 위에 펼쳐본다.

소아전용 응급실의 긴박한 24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SBS·오후 5시35분)=우주선 모양의 문을 따라 들어가면 펼쳐지는 세상. 알록달록 제미난 동화 속 세상에서 책을 읽고 환하게 웃는 아이들. 그런데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구조대원과 도착한 아이. 간박한 소아전용 응급실의 24시간은 시작된다. 구조대원과 함께 도착한 환자는 길을 건너고 교통사고를 당해 이송된 여자아이. 팔의 골절과 놀출혈 증세가 있는 아이에겐 1분 1초가 극심한 고통인 위급한 상황이다. 추가 놀출혈이 없다는 소견과 함께 불안하던 엄마·아빠의 마음에도 안정이 찾아온다. 그러나 평온한 순간도 잠시. 보호자의 불안한 얼굴과 함께 올면서 들어오는 아이들의 상태 역시 심상치 않다. 소아전용 응급실 그곳에는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사연과 눈물 그리고 감동이 있다.

한·중·일 북극해 경쟁 승자는



시사기획 창(KBS1·밤 10시)=지난 5월 스웨덴 키티나에서 낭보가 날아왔다. 한국이 북극이사회 영구 익스체인으로 가입한 것이다.

북극과 연고가 있는 대한민국에 북극이 사회 진출은 절실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도 영구 익스체인으로 진출, 북극해에 한걸음 다가갔다.

북극은 세계 미개발 석유의 13%, 천연가스 30%가 매장된 ‘지구 마지막 보물 창고’이다.

북극은 세계 미개발 석유의 13%, 천연가스 30%가 매장된 ‘지구 마지막 보물 창고’이다.

북극은 세계 미개발 석유의 13%, 천연가스 30%가 매장된 ‘지구 마지막 보물 창고’이다.

북극은 세계 미개발 석유의 13%, 천연가스 30%가 매장된 ‘지구 마지막 보물 창고’이다.

북극은 세계 미개발 석유의 13%, 천연가스 30%가 매장된 ‘지구 마지막 보물 창고’이다.

북극은 세계 미개발 석유의 13%, 천연가스 30%가 매장된 ‘지구 마지막 보물 창고’이다.

북극은 세계 미개발 석유의 13%, 천연가스 30%가 매장된 ‘지구 마지막 보물 창고’이다.

북극은 세계 미개발 석유의 13%, 천연가스 30%가 매장된 ‘지구 마지막 보물 창고’이다.

북극은 세계 미개발 석유의 13%, 천연가스 30%가 매장된 ‘지구 마지막 보물 창고’이다.

북극은 세계 미개발 석유의 13%, 천연가스 30%가 매장된 ‘지구 마지막 보물 창고’이다.

북극은 세계 미개발 석유의 13%, 천연가스 30%가 매장된 ‘지구 마지막 보물 창고’이다.

북극은 세계 미개발 석유의 13%, 천연가스 30%가 매장된 ‘지구 마지막 보물 창고’이다.

북극은 세계 미개발 석유의 13%, 천